

문화

빛에 스며든 예술

4월개막 광주세계광엑스포서 빛고를 작가 '시민 파빌리온' 전

"빛과 예술이 만나는 광주세계광엑스포로 놀러오세요."

우재길, 최재영, 손봉채씨 등 지역 작가들이 오는 4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에서 고품격 빛 예술을 선사한다.

24일 광주세계광엑스포 재단은 오는 4월2일~5월9일 상무지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리는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주제전 '시민 파빌리온'(공동커미셔너 주홍·윤은희)의 참여 작가를 발표했다.

'시민 파빌리온'은 우재길, 최재영, 정선희, 김진화, 윤익, 김상연, 이이남, 신

양호, 고근호, 손봉채, 정운학, 진시영씨 등의 작품을 소개하는 예술 공간이다.

또 예술치료 전문가와 그림자 인형극 전문가들이 참여해 빛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오라·이벤트존, 시민참여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들 작가들은 상무공원 일대에 30여 개의 컨테이너를 펼쳐놓고, 배정받은 컨테이너를 직접 전시공간으로 꾸며 다양한 빛 예술을 선보인다. 컨테이너 외벽을 알록달록하게 색칠한 뒤 작가들의 개성이 묻어나는 특색 있는 작품을 설치한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대표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볼 만한

작품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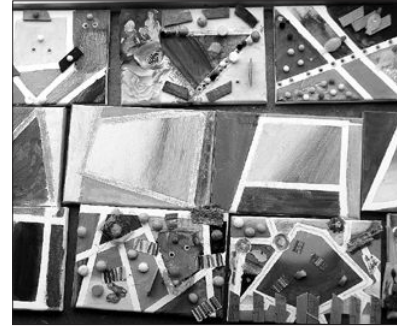
서양화가 우재길씨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색을 입히는 '내손으로 만드는 빛'을 선보인다. 시민 1천여명이 함께 만들게 될 이 작품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작가 손봉채씨는 남도 지역 6곳의 당산나무를 투명한 판에 그려, 이를 다시 겹치게하는 방식으로 입체감을 살린 '본 짙은 보이지 않는다' 연작을 전시한다.

또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씨는 국·내외 문화 소의 계층이 원하는 작품을 만든 뒤 이를 그들에게 기부하는 이색 창작 프로그램인 '빛의 예술로 희망을



손봉채 작 '당산나무'



우재길 작 '내손으로 만드는 빛'

나누다'를 선보인다.

광주교도소 수감자들의 설문을 통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를 뽑아 영상 작품을 만든 뒤 전시가 끝나면 이를 광주교도소에 기부하게 된다. 또 전쟁과 이터 국민의 추전을 받은 고건 명화를 패러디 한 작품도 같은 방법으로 전시한다.

이 밖에 서양화가 최재영씨는 인형으로 가득 채운 전시 공간을 가상 수족관으로 꾸며, 아광 물고기가 공중에 떠다니는 환상적인 작품을 출품한다. 고근호씨도 웃고, 우는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 작품을 내놓는다.

아동극 전문 팀인 '물개'가 선보이는

빛을 이용한 그림자 인형극, 빛의 마술 등도 흥미롭다. 공연이 끝난 뒤 어린이들이 직접 인형극을 해볼 수 있고, LED 조명을 이용해 빛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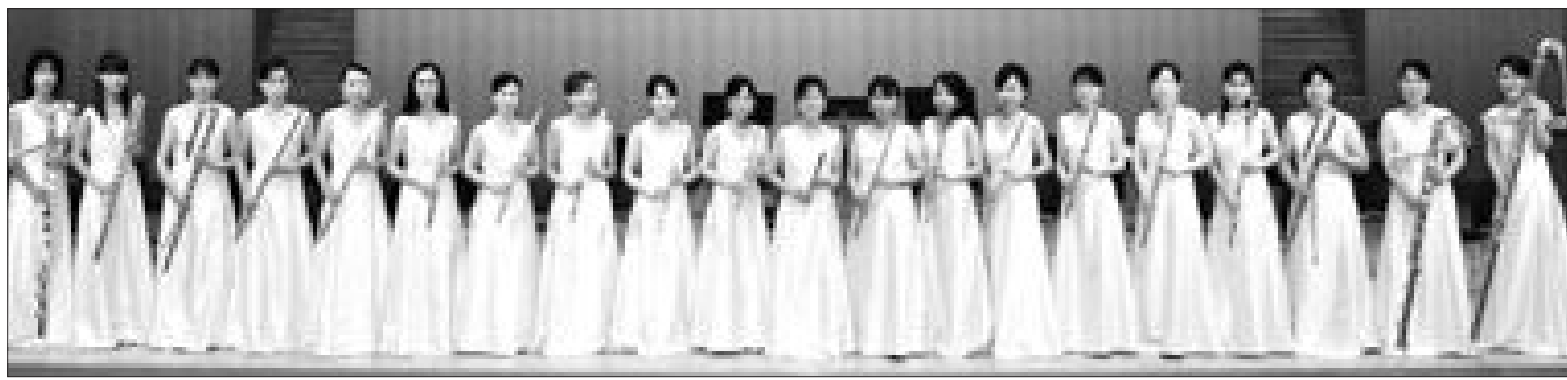
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온누리 빛'과 지난해 광주시 동구 급남로 무등빌딩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빛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모은 '빛에 대한 2010개의 생각' 등도 흥미롭다.

주홍 공동 커미셔너는 "빛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을 감상할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작가들의 창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이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빛에 대한 2010개의 생각' 사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광주세계광엑스포재단 제공>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일 일본 플루트 오케스트라 '우미 부에노 카이'

4월 광주 클래식 향연에 쫓는다

11~13일 국제음악제...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등 초청 연주

민간단체 2009연예예술위서 주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오는 4월 열리는 제2회 광주국제음악제를 기다려도 좋을 듯하다.

오는 4월 11~13일까지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유명 솔리스트들의 연주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예술감독 백홍승씨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음악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 단체에서 준비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250석 규모의 금호아트홀에서 현악 앙상블 위주로 음악회를 진행했던 주최측은 올해는 챔버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구

모를 키웠다.

특히 정상급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이번 음악회의 레퍼토리를 사람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선정, 관객들이 좀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베토벤 교향곡 7번, 슈베르트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비안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음악제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인 교토 팔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와 세계 정상급 플루트 오케스트라 '우미 부에노 카이'가 3일간 무대에 선다.

특히 '우미 부에노 카이'는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운 플루트오케스트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프로 플루티스트 30명으로 이루어진 이 단체는 피콜로, 알토 플루트,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등 다양한 형태의 구성으로 마치 파이프 오르간과 같은 음



<필립 피에를로>

<백주영>

색을 선보인다.

또 29살에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며 프랑스국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중인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필립 피에를로, 중국베이징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티스트 상린 첸, 트럼펫의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부산시향 수석), 김영미(계명대 교수), 피아니스트 서영화(조선대) 교수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5만원~1만원. 문의 062-226-2030.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행복주는 기쁨의 발레

시립무용단 25~26일

문예회관에서 갈라무대

발레 전막 공연도 좋지만 유명 작품의 하이라이트만을 모은 '갈라 무대'는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행복을 주는 기쁨의 발레'라는 주제로 갈라 무대를 준비했다. 25~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번 무대에서는 '노트르담 드 파리'를 원작으로 한 발레 '에스메랄다,

집시소녀와 프랑스 장교의 사랑을 그린 '파키타', 정열적인 젊음 여인의 춤사위를 만끽할 수 있는 '카르멘', 역동적인 춤을 선보이는 '해적' 등이 공연된다.

또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 '백조의 호수' 중 32바퀴 회전을 선보이는 '흑조', 고난도 테크닉이 돋보이는 '돈키호테' 중 2인무는 발레 감상하는 재미를 주는 작품이다.

그밖에 하이든의 교향곡 '시계'를 배경으로 한 '심포니 in D'는 다소 정형화된 클래식 발레와는 다른 모던 발레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작품이다.

김정희·김선돈·송관석·조현자·최윤정·강병창·박성화·정아람·구윤지·조성훈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1만원, 5천원. 문의 062-522-8716.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용봉동에도 작은 도서관

"도서 정가제 유지해야"

출판·서점단체들 촉구

청소년 도서 구비 오늘 개관

광주시 북구 신안동 작은도서관에 이어 용봉동에 제4호 작은도서관이 25일 개관한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문을 여는 이번 작은도서관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1억4천만원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옛 용봉사회복지관 2층에 풍지를 틀었다.

작은도서관이 들어서 이 지역은 중·소형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문화시설에 목말라 있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의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청소년을 위한 우수도서를 구비하고 지역내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기능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10시~오후7시)까지 개방하며 운영은 북구일곡도서관에서 담당한다. 문의 062-510-134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간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9개 출판·서점 단체들은 24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할인율을 10%까지로 제한해 도서 정가제 구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경영자협회 등은 성명서에서 "가치상품인 책을 경쟁 논리에 맡기면 양서 판매와 출간이 위축된다"며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가격 거품이 심해지고 중소 서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http://kwangju.land3.co.kr

한국 최대 합격률 배출한 그 특목유
2010년도 100% 합격보장!!

개강 3월2일 **국비완금 100%**

▶ 특목유 무료 입학예비반
▶ 특목유 무료 특목유
▶ 특목유 100% 합격 보장
▶ 특목유 장학금 500만 원

민·개·공 3인방
- 특목유 특목유
- 특목유 특목유
- 특목유 특목유

LAND3 529-0019

국·비·지·원

전기소방

신설전기기계학원

문의 ☎ 374-2404, 373-1959

손해사정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1회 보험심사역

개강 3월 2일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361-8110

광주검재규경철학원

광주검재규경철학원